

제2차 동북아 외교안보포럼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

| 일시 | 2017년 11월 1일(水)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CONTENTS

중국 공산당 제 19 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경제, 외교정책적 함의 -

사회 : 김은옥 수석연구위원(민주연구원)

❖ 발제

- 중국 정치사상과 18차 당대회 및 중국의 전략 1
김진호 교수(단국대)
-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의 변화와 연속성 25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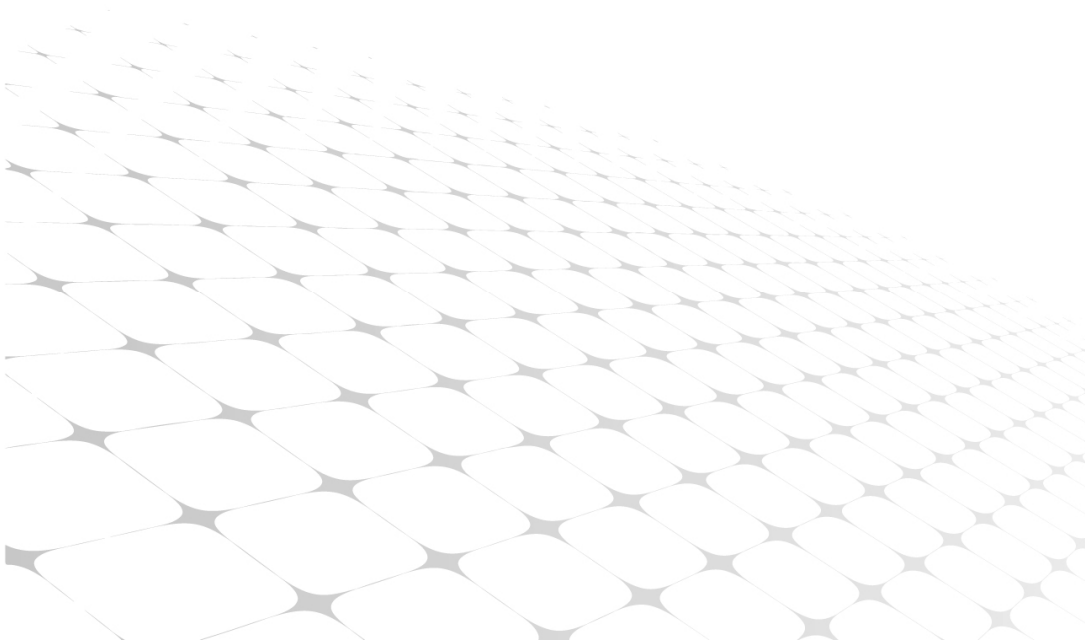
❖ 토론

-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분야 37
원동욱 교수(동아대)
-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 43
최필수 교수(세종대)
-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결과와 함의 51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61
허승재 심의관(외교부)

발 제 1

중국 정치사상과 18차 당대회 및 중국의 전략

김진호 교수(단국대)



발표 내용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며 발표자의 해석을 첨부한 극히 개인적 의견이니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중국 정치사상과 18차 당대회 및 중국의 전략

김진호 교수(단국대)

목 차

1.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와 정치사상
2. 중국19차 당대회와 시진핑 사상
3.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 경제정책
4. 정책 제언

1.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와 정치사상

□ 중국 공산당의 정치사상은 1919년 '5·4'운동에서 근대화 민족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1921년 상하이에서 창당된 공산당은 이후 민족 운동인 '5·4'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고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중국의 '신문화운동'

- 1919년의 '5·4 운동' 이후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널리 전파되었으며 혁명적 단체에 의해 진보적 간행물들이 많이 나오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났음.
- 신해혁명에 따라 중국 국내의 어지러운 환경은 만주족이 통치하던 청나라의 부패와 무능에서 벗어나 한족(漢族)에 의한 근대화된 국가를 건국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이 시기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지역은 중국의 신문화가 들어오는 경로였으며, 베이징과 남경은 정치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홍콩과 하와이에서 수학한 쑨원(孫文, 손중산)의 '명청흥한(滅清興漢)' 운동과 광주봉기도 광동성과 관계가 깊음.

- 광둥성은 캉유웨이(康有爲), 홍수이취엔(洪秀全) 등 개혁 사상이 많았던 지역임. 광둥성 위의 장시성(江西省)과 후난성(湖南省)은 모두 공산당 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곳임.
- ‘신문화운동’이란 광의로 보았을 때 그 시작은 천두슈(陳獨秀)가 『신청년(新青年)』을 창간한 1914년부터이며, 종료된 것은 『신청년』이 정간된 1923년까지로 보고 있음.
- 협의로는 천두슈가 베이징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신청년』의 편집진으로 베이징에 있을 때인 1917년부터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립까지로 보고 있음. 그리고 1919년 ‘5·4’ 운동을 경계로 신문화운동의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음.
- 초기의 중국 공산당 사상은 일본에서 유학한 다이치타오(戴季陶, 후에 국민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국민당이 패망하자 자살함)를 위주로 한 천두슈, 리다자오(李大釗) 등의 사상이 그 뒤를 이었고, 루쉰(魯迅, 저우수런周樹人; 동생은 문인인 저우쥘런周作人)의 문학사상에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자들이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여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노선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펼쳐 나감.
- 당시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인텔리들이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 10월혁명의 경험을 연구하고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데 열성적이었음.
-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남진북이(南陳北李)’라 했는데, ‘남진’은 남방 안후이성(安徽省) 사람 천(陳)두슈를 말하고 ‘북이’는 북방 허베이성(河北省) 사람 리(李)다자오를 말함. 그들은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아울러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했음.
- 공산당 설립은 1921년 7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租界地)에 있는 한 건물(周公館)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된 것이 시작 임.
- 당시 참가한 대표는 모두 13명이었는데, 상하이 대표로는 리다(李達)와 리한쥔(李漢俊), 베이징 대표로는 장궈타오(張國濤)와 리오런징(劉仁靜), 후난(湖南, 호남) 대표로는 마오쩌둥(毛澤東)과 허수형(何叔衡), 후베이(湖北) 대표로는 동비우(童必武)와 천탄치우(陳譚秋), 산둥 대표로는 왕진메이(王燾美)와 덩언밍(鄧恩銘), 광둥 대표로는 천공버(陳公博) 그리고 일본 유학생 대표로 조우퍼하이(周佛海)가 참석했음. 천두슈와

리다자오는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

- 이 회의는 경찰의 습격을 피해 가흥(嘉興)으로 옮겨져 마치게 됐음.
-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강령을 통과시키고 중국 공산당 중앙기구를 조직하고 조직을 구성했음. 천두슈는 중앙국 서기, 리다자오는 선전주임으로 선출됨.

□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

- 마오쩌둥은 후난성 상탄(湘潭)현 샤오산(韶山)에서 태어났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8세에 마을 서당에 입학하고 13세까지 『논어』를 비롯한 사서(四書, 논어·맹자·대학·중용) 등을 공부했다고 함.
- 16세 때까지 아버지의 반대로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도우며 틈틈이 책을 읽다가 동산(東山) 고등소학에 들어갔고 그 뒤 창사(長沙)의 상향(湘鄉)중학으로 옮겼고, 그 시기에 《민립보(民立報)》의 열렬한 독자가 되어 그 신문에 실린 반청론(反淸論)이나 혁명론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함.
-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혁명군에 입대하였다가 1912년 제대한 뒤 창사 제1중학에 입학하였으며, 다시 ‘제1사범학교’에 입학하였음. 이 시기 대학 공부나 외국 유학을 하지 못한 그는 이 학교에서 영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중국의 봉건사상 비판에 힘썼던 베이징대학 출신 교사 양창제(楊昌濟, 1871~1920)를 만나 많은 영향을 받음.
- 마오쩌둥은 1918년 학교를 졸업한 뒤 베이징으로 가서 후난 청년들의 외국 유학도 도왔고, 그 해 10월 소년중국학회에 가입하고 양창제의 소개로 베이징대학 도서관 주임인 리다자오의 조교로 일하면서 수업을 청강하였음.
- 마오쩌둥은 철학회와 신문학연구회(新文學研究會)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양창제에게서 유물론적 철학과 윤리학 강의를 받으며 비밀 학생단체들과 접촉하면서 무정부주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 그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로 기울게 되었음.
- 1919년 ‘5·4’운동 발발 후 후난학생연합회를 설립하고, 《상강평론(湘江評論)》이란 간행물을 펴냈으나 곧 폐쇄당하고 베이징으로 도망쳤는데, 당시 러시아혁명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함.

- 1920년 상하이에서 천두슈를 만났고, 다시 창사로 돌아와 1924년까지 창사 제1사범학교의 부속소학교 교장 겸 사범부의 어문(語文) 교사로 활동함.
- 1922년 양창제의 딸 양륜후이(楊潤慧)와 결혼하였고, 그해 7월 상하이의 중국공산당 창립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후난성 대표로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출석하였고, 1924년 국공합작이 되자 공산당 중앙위원, 국민당 제1기 후보, 중앙집행위원, 선전부장 대리, 중앙농민운동 강습소장, 정치주보 사장 등을 겸임하였음.
- 1926년 장제스(장개석蔣介石)가 군벌 타도를 외치며 북벌을 개시하자 그는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갔다가 1927년 다시 우한(武漢)으로 가서 중국공산당 중앙농민부장이 되었고, 국공분열(國共分裂) 뒤 농홍군(農紅軍) 3,000명을 조직하여 정강산(井岡山)에 들어가 근거지로 삼고 주더(朱德)의 군대와 합류하였음. 이듬해 공농홍군(工農紅軍) 정치위원이 되었고, 1930년 홍군 제1방면군 군사위원, 중국 공농혁명위원회 주석에 올랐음.
- 1931년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의 중화 소비에트정부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이 되었고, 인민위원회 주석으로 뽑혔음.
- 1934년 10월 루이진에서 산시(陝西)성 옌안(延安)까지 1만 2,500킬로미터에 이르는 대장정을 시작하였으며, 도중에 구이저우(貴州)성 쑤이(遵義) 회의에서 당 지도권을 장악하게 됨.
- 서안사건을 거쳐 국공합작에 성공하자 항일(抗日)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하고, 홍군을 국민혁명 제8로군으로 개편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게 됨.
- 1945년 4월 중앙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보고로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고, 중앙위원회 주석이 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5년 8월 충칭에서 장제스와 회담하여 화평건국의 여러 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1946~1948년에 2번째 국공내전을 벌여 승리하였고,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베이징에 세우고 국가주석 및 혁명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뽑혔음.

□ 중국공산당의 정권(국가) 수립과 정치

○ 중국 공산당의 정권 수립과 내부 투쟁

-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국가) 수립 후 장궈다오(張國燾)·가오강(高崗)·왕밍(王明)·펑더화이(彭德懷) 등에 의하여 야기된 심각한 당내 권력투쟁이 계속되었으며, 1956년의 스탈린 비판 이후부터 점차 소련공산당과의 대립이 심화되었음.
- 1965년 가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류샤오치(劉少奇)를 비롯한 초창기 이래의 지도자들이 잇달아 실각(失脚)하고, 당내 투쟁의 격동은 1969년 9중전회(九全大會)에 의한 마오쩌둥-린바오(林彪) 노선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음.
- 그 후 소위 항미무장투쟁노선(抗美武裝鬭爭路線)을 내세우는 린바오와 유연외교노선(柔軟外交路線)을 주장하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사이에 대립이 일어났고, 대미·대소 외교문제와 국내경제건설문제를 둘러싼 당내 투쟁이 격화되었는데, 그 결과 1972년에는 린바오가 실각하였음.
- 그 이후부터 저우언라이의 대미협조(對美協調)를 축으로 한 유연외교노선이 정착되었고, 1973년 10중전회(十全大會)에서 린바오·첸버다(陳伯達)의 당에서 영구추방(黨外永久追放) 됨.

□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

○ 중국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독자적인 혁명사상 임.

- 1920년대부터 공산당의 치열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마오쩌둥사상은 징강산(井岡山) 유격투쟁·장시(江西) 소비에트 임시정부 수립·대장정(大長征)·국공합작과 항일전쟁·국공내전·중화인민공화국 수립·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완성되었음.
- 그 내용에는 마오쩌둥이 전개한 유격전술, 대중조직방법, 토지개혁정책,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신민주주의론, 사상개조운동, 실천론과 모순론, 영구혁명론, 사회제국주의론을 포함하고 있는데, 마오쩌둥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반(半)봉건적이고 반식민지적인 중국사회에 접목시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공산주의 전략임.

○ 마오쩌둥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의 계급 동맹을 중심으로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농촌을 혁명근거지로 장기간의 유격전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둘째, 인간의 인식은 생산활동·계급투쟁·과학실험 등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되며, 실천을 통하여 이론은 그 정확성이 검증되고 확대된다고 하여 실천을 중시하였음. (실천을 사상의 검증으로 봄)
- 셋째, 모든 사물의 발전과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을 확대시켜 모순을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으로 구별하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 내부의 모순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하여 그 해결방법으로 비판·설득·사상개조·교육 등을 제시하였음.
- 넷째, 자본주의사회가 전복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수립된 후에도 계급·계급적 모순·계급투쟁, 사회주의노선과 자본주의노선 간의 투쟁, 자본주의 복구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순은 혁명을 계속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았음.

□ 4인방의 처단과 새로운 지도부 탄생

○ 4인방의 처단과 중국의 새 지도부

- 저우언라이·덩샤오핑(鄧小平) 등 경제재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후에 ‘4인방(四人幫)’이라 불린 왕홍원(王洪文)·장춘차오(張春橋)·장칭(江青)·야오원위안(姚文元) 등은 정치 우선을 주장하였음.
- 저우언라이·덩샤오핑 등을 ‘유생산론자(唯生產論者)’ ‘주자파(走資派)’라 비판하고, 저우언라이가 사망(1976년 1월)한 후 세력을 확대하여 톈안먼사건(天安門事件, 1976년 4월)을 이용하여 덩샤오핑을 추방함.
- 그러나 마오쩌둥 사망(1976년 9월) 직후, 화궈펑(華國鋒) 당 제1부주석·총리 등에 의하여 ‘4인방’은 타도되었음.
- 1976년 10월 화궈펑은 당주석에 취임, 국무원총리를 겸임하고 예젠잉(葉劍英)은 부주석으로, 후에 다시 복권(復權)한 덩샤오핑은 부주석·부총리로 마오쩌둥 사망

후 중공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함.

○ 11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새로운 지도부 탄생

- 1977년 8월에 열린 11차 전당대회에서 (十一全大會)에서 ‘4인방’ 비판의 강화를 호소함과 동시에 제1차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언함.
- 그 후 화궈핑도 덩샤오핑의 개혁에 밀려나고, 1981년 덩샤오핑·후야오방(胡耀邦)·자오쯔양(趙紫陽)체제가 확립됨.
- 1982년 9월 12차 당대회(十二全大會)에서 마오쩌둥의 극좌적(極左的) 잔영이 지워진 새 당헌(黨憲)을 채택하고, 당총서기(黨總書記) 중심제를 부활하고 정치국(政治局)과 서기국(書記局) 등 당의 지도체제를 개편함.

□ 덩샤오핑과 덩샤오핑 사상

○ 덩샤오핑의 출생과 성장

- 덩샤오핑은 1904년 쓰촨성(四川省) 광안(廣安)의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1939년 8월 12세 연하의 쥐린(卓琳)과 연안에서 3번째 결혼하여 둘 사이에 2남3녀의 자녀를 두었고, 1997년 2월19일 향년 93세 나이로 타계했음. (홍콩의 반환을 보고 눈을 감고 싶다 했지만 그 보다 일찍 서거함)
- 덩샤오핑은 1918년(14세)에 프랑스로 유학해 20년대 초 파리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였고 모스크바의 중산(中山) 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해 광시(廣西)에서 공산당의 지하 운동을 이끌었음.
- 이후 마오쩌둥이 이끄는 대장정(大長征)에 참가하고, 팔로군(八路軍) 정치위원으로서 장강(長江) 도하작전과 난징(南京) 점령을 지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공을 세운 그는 1952년 정무원 부총리를 시작으로 당의 요직을 맡으며 현대 중국의 건설을 주도했음.
- 국가주석 류샤오치와 함께 경제발전을 위해 물질적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엘리트를 양성하자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했던 그는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홍위병으로부터 ‘반모(反毛) 주자파(走資派)의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했음.
- 1973년 3월 총리 저우언라이의 추천으로 복권돼 국무원 부총리가 됐지만, 1976년

1월 저우언라이가 죽자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던 이른바 4인방에 의해 다시 권력에서 밀려났으나, 그 해 9월 마오쩌둥이 죽고 화궈펑이 4인방을 제거한 뒤인 1977년에야 그는 다시 복권됐고, 1981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음.

○ 덩샤오핑 사상(이론)

- 덩샤오핑 개혁·개방사상의 핵심은 실사구시(實事求是)였고, 이것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당시 「혁명의 정신」을 먹고 살고자 했던 사상에 대한 도전이었음.
- 덩샤오핑은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이것이 그가 혁명파로부터 배신자의 소리와 「자본주의를 걸어가는 사람(走資派)」의 낙인을 받고 숙청됐던 배경임.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중국 사람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한다.」는 선부론(先富論)을 주장했다.
- 현재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이 말한 후자를 의미하며,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되기 함.
- 덩샤오핑이 주장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이념으로 원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이즘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론임.

□ ‘3개대표론’과 ‘과학적 발전관’

- 장쩌민 전주석이 2000년 2월 제시한 ‘3개 대표론(三個代表論)’은 첫째 당은 선진적 사회생산력의 발전이며, 둘째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최다 인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론임.
- 이 이론은 장쩌민이 집권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함께 중국의 지도이념으로 떠받들어졌고, 2004년 3월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 대회는 이 이론을 수정헌법에 지도사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했었음.

- ‘3개 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은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을 품 안에 끌어들이겠다는 내용으로 중국공산당을 유럽식 사회민주당 또는 국민정당을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맹아(萌芽)가 내포돼 있음.
- 3개 대표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생산력 발전 요구이며, 선진생산력은 바로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를 형성한다고 함. 따라서 당은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추진하여 인민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하고, 이러한 생산력발전의 추진을 위해 경제건설의 중심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임.
- 선진문화 발전 요구는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하는 지도 사상으로 선진문화는 인류 문명의 진보적인 결정체로 정신적인 동력과 지력·기술의 총체이고, 선진문화는 건설적이며,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사회 전진적인 문화를 향상시키기에 이러한 선진문화 발전을 위해 선진적인 사상도덕문화와 과학기술문화가 요구된다는 것임.
-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이란 선진생산력 발전 요구, 선진문화 전진방향은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과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그 중 ‘3개 대표론’을 관통하는 것은 인민의 광대한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민대중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인민을 위한 복무(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임.
- 3개대표론은 표현을 바꾸어 말하면 중국공산당은 공산당의 교리나 강령에 묶여 중국의 국가로서의 선진화나 다양한 선진문화 유입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노농계급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당에 머물지 않고 중국선진화에 이바지한 민간 기업가들에게 당의 문호를 개방하는 당으로 변신하여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이익 대변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임.
- 이 이론은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공산당 내 보수파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우선 당내 보수파 거두인 화궈평은 당의 변질에 격분하여 공산당 탈당을 선언했고

같은 보수파의 덩리쥘(鄧力群)도 강력 반발하였음.

- 그러나 장쩌민은 그의 유명한 “위스쥬진”(與時俱進), 즉 시대의 흐름에 앞서지도 뒤지지도 말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야 당이 산다면 3개 대표론에 대한 당내 지지를 호소했고, 마침내 제16차 당 대회는 중국공산당의 당 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더불어 장쩌민의 3개대표론을 당 이론의 하나로 채택하였음.
- 3개 대표론은 지금까지 공산당이 무산계급이라는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표해 온 기존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자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계속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엔진인 민간 기업인, 자영업자, 전문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중국의 발전목표가 있음.

○ 과학적 발전관

- 중국 공산당은 2003년 16기 3중 전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제기했는데,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내용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균형 발전,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을 말하는 것임.
- 핵심 내용과 더불어 과학적 발전관의 5가지 핵심 원칙이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견지, 대중의 솔선수범 정신 강화, 개혁·발전·안정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균형 견지, 다방면에 대한 통일적 계획 수립, 인간 본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함.
- 과학적 발전관은 장쩌민의 뒤를 이은 후진타오 체제의 지도 이념으로 21세기 중국이 처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공산당의 정책적 대응인 동시에 개혁·개방 시기 새로이 발생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 임.
- 과학적 발전관은 화해(和協)사회론 성립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화해사회가 중국이 건설할 이상적 사회 형태라고 한다면, 과학적 발전관은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입장이자 관점 임.
- 과학적 발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관, 인간 위주의 발전관, 균형 발전을 말함.
- 지속 가능한 발전관은 인구, 자원, 환경, 과학 기술, 사회 등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산-생활-생태를 모두 포괄하는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담겨 있음.

-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는 발전관을 말함.
- 인간 위주의 발전관은 우선 인류 생존과 발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 발전의 목적 또는 출발점이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것이 사회 발전의 기본 척도가 된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은 개혁·개방 시기의 성장 모델이 불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는 주장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 계층과 계층 사이, 동남부 연해와 내륙 지역 사이, 사회 각 부문 사이의 경제적 소득 격차의 심화는 이 같은 불균형 발전이 가져온 직접적 결과라 먼저 불균형 발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임.

2. 중국 19차 당대회와 시진핑 사상

□ 공산당 지도부 선출과 19차 당대회 인선

당 총서기 선출과정



당대회 19차 신임 상무위원



✓(리잔수/왕양/왕후닝/자오러지/한정 순)

□ 중국 사회주의 지도자 사상(이념)의 변천과 발전

시기별 내용

중국 공산당 지도부 통치이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념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당장 취임 시기	1945년	1997년	2002년	2012년	2017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대중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평등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혁·개방, 시장경제 부강한 사회주의 선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가도 공산당원으로 모용 수출 위주 양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적·질적 성장 조화 균형발전 추구 빈부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오강 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중화민족 부흥

지도자별 사상과 이론의 특징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마오쩌둥 사상 (1945년 7차 당대회)	덩샤오핑 이론 (1997년 15차 당대회)	3개 대표론 (2002년 16차 당대회)	과학적 발전관 (2007년 17차 당대회)	시진핑 사상 (2017년 19차 당대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실정에 맞게 적용	시장주의 도입	자본가 입당 허용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사회 불균형·불평등 해소

중국 공산당 지도이념 추이

구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시진핑(習近平) 사상
시기	1949~1978 1단계 30년	1979~2008 2단계 30년	2009~2038 3단계 30년
주창자	마오쩌둥(1893~1976)	덩샤오핑(1904~1997)	시진핑(1953~)
목표	건국, 평등사회 실현	개방, 경제도약	중국몽, 최강국가 건설
특징	건국, 계획경제 독자적 사회주의	개혁개방, 시장경제 서구 시장경제 벤치마킹	개혁개방, 시장경제 지속 서구 벤치마킹 NO 선언
외교	비동맹 평화 5원칙	도광양회(韜光養晦) 영불당두(永不當頭)	신형대국관계 강대국 외교
1인 GDP	1978년 190달러	2008년 3404달러	2016년 8261달러
경제사회단계	원바오(溫飽) 불가 아사자 대량 속출	원바오 통과 샤오강(小康) 시작	전면 샤오강(小康) 실현 대동(大同)사회 건설 목표

○ 정치 사상으로 마오쩌둥 반열에 오른 시진핑

- 중국 공산당은 이념을 명기할 때 주의-사상-이론-관 순으로 표기하는데, 당장에 삽입된 사상은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두 번째임.
- 중국 최고 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삽입한 것은 마오쩌둥 이후 처음임.
- 덩샤오핑의 이름을 딴 '덩샤오핑 이론'이 삽입된 것도 그의 사후(1997년 제15차 당대회)였고, 개인숭배를 반대한 생전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
- 반면 시 주석은 집권 불과 5년 만에 이름을 올렸음. 올해 64세의 현역으로 자신의 이름과 정치이념을 당장에 써넣는 데 성공한 것임.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당장 삽입된 것임.
- 중국 공산당 결의문은 시진핑 신시대 사상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다.”라 평가했음.

○ 만장일치 당장에 오른 시진핑 사상

-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이념이 당장에 삽입되는 데 대해 반대 혹은 기권한다고 손을 드는 대표는 2,336명 중 아무도 없었음.
- 수정안 발표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표결을 하겠다.”며 “동의하는 당 대표들은 손을 들고.” 했으나, 2,336명의 당 대표는 손을 번쩍 들었음. 시 주석은 이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손을 들라 고” 했고 당 대표석에서 누군가가 “없습니다.”라고 손을 떼자 5차례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음. 시 주석이 “기권자는 손을 들고” 하자 다시 “없습니다.”라는 말이 6차례 연이어 인민대회당에 울려 퍼졌음. 그리고 시 주석은 즉시 “통과됐다.”고 선포했음.

○ 중국의 당장의 의미와 집단지도체제

- 중국 공산당이 1921년 창당한 이래 모두 17차례의 당장 개정이 있었는데 현재의 당장은 덩샤오핑 시대인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 통과된 당장을 기초로 하고 있고, 집단지도체제 도입, 개인숭배 금지 등이 그 때 이뤄졌음.
- 시 주석이 이날 내세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됨.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중국은 통상 다음 5년의 국정방향을 짜는 당대회에서 향후 30년을 규정하고 해야 할 일을 설계하는 일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말고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인데, 시 주석이 지난 18일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전체 구도는 5위 일체, 전략구도는 4개 전면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시진핑 신시대 사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

○ ‘5위 일체’와 ‘4개 지침’

- 5위 일체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 과정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임.
- 과거의 경제 현대화 전략으로부터 경제·정치·문화건설의 3위 일체, 사회건설을 엮은 4위 일체에 이어 다시 생태문명 건설을 포함시킨 전략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이 5개 분야에서 성과가 있어야 목표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목표 추진과정에서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등 4개 지침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시 주석은 주문했음.
- ‘시진핑 신시대 사상’은 또 시 주석이 항상 강조해 제창한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

(칸치看齊, 함께 중요하게 여김) 4개 의식을 담고 있음.

- 일선의 당원 간부들이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전세계 형세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보라는 의미로 이중에서도 핵심 의식과 일치 의식은 당을 지휘하는 핵심인 시 주석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당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을 굳건히 가질 것을 요구했음.
- 이에 따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4개 위대’ 전략도 함께 제시했음.
- 궁극적으로는 당 내부의 기율을 엄격하게 세워 공산당 1당 체제의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고, 중국 인민들이 바라는 ‘강대한 중국’을 향해 나가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시진핑 사상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덩샤오핑 이론의 차이

○ 먼저 부자 되라는 ‘선부론 vs 모두 잘 살자는 ‘샤오캉’의 차이

- 덩샤오핑은 1970년대 말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천명하면서 ‘선부론’을 제시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수)가 유엔이 제시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인 0.4를 넘어선 상태에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제시했음.
- 시 주석은 연설에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기초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21세기 중반까지 부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음.

○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와 시진핑의 ‘중화부흥’

- 몸 굽히고 실력 키우자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시진핑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중화부흥’을 강조함.
-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과는 상황이 다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음. 이런 중국의 위상에 걸맞게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공산당의 신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에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음.

○ 시진핑은 2050년까지 양안 통일을 시사하며 “분열 책동 용납 안한다고”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완전한 조국통일’을 거론하며 2050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
-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 분열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그는 “그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을 도모하는 분열 책동도 좌절시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어 개인, 조직, 정당, 시기, 방식, 지역을 불문하고 중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분열시키는 행위를 허용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 시 주석은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강조했는데, 그는 “조국의 완전 통일 실현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구로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시 주석이 2050년까지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는 2050년 이전에 대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라고 홍콩 명보(明報)는 해석했음.
-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의 역사적 사실과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만 하면 양안은 대화를 갖고 협상을 통해 양안 동포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화적인 발언도 했음.
- 시 주석은 아울러 대만이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제도와 대만인의 생활방식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발전 기회를 대만 동포와 먼저 나누길 바란다고도 했음.
- 또한, 양안간 경제·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대만 동포’들이 중국에서 학업, 창업, 취업, 생활함에 있어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음.

3.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 경제정책

□ 경제정책은 질적 성장 전환하여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역점을 둘 것임

○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개막 보고 핵심 키워드는 ‘신시대(新時代)’였음.

-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신사명(新使命), 신사상(新思想), 신장정(新征程)을 언급했음.
-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을 적립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는 것임.
- 당대회에 참가한 148명의 기업(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당과 국가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며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음.
-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뒤 이어지는 경제공작회의(올해 12월)와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19차 3중전회 등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됨.

○ 시진핑은 빈곤전문가로 탈빈 논문으로 박사 학위 받음

- “농촌을 ‘시장화’ 하지 않으면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할 수 없고, 농촌 개혁과 발전은 자연히 큰 진전을 거둘 수 없다.”고 시진핑은 강조함. 도농건설을 통해 지역간 균등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임.
- 1999년 시진핑은 당시 푸젠성 부서기는 푸젠성 당교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농촌의 시장화를 고질적인 가난 탈출책으로 제시했고, 그 이후에도 농촌 빈곤 문제를 다룬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이를 모아 『중국 농촌 시장화 건설 연구』란 제목의 학위 논문으로 칭화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음.

○ 젊은 시절 펴낸 시 주석의 첫 저서도 빈곤 탈출이 주제였음.

- 1992년 출판한 『파탈빈곤(擺脫貧困)』은 푸젠성 닙더(寧德) 지구 당서기 근무 시절의 기고·연설문을 묶은 것으로 고질적인 가난 탈출 역정이 생생하게 담겨있음.

- 1985년 닝더 지구 농민 연평균 수입은 329.65위안. 현 환율로 5만6000원에 불과한 액수다. 시 주석은 재임 2년 동안 “잘살아 보세” 운동에 주력했고 푸저우(福州)로 영전할 때 빈민 94%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음.
-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0년 8월 12일 자에 ‘닝더, 최저수입한계선을 넘다’는 기사를 실었고 가난 탈출 전략인 ‘닝더 모델’의 탄생했음.
- 중국 빈곤퇴치의 모델로 푸젠의 ‘닝더 모델’과 구이저우(貴州)성 ‘비제(畢節) 모델’을 꼽는데, 후자는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習仲勳)이 길을 닦고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만들었다고 함.

시진핑의 로드맵





(시사저널)

□ 당대회서 제시한 경제정책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개혁 방향	
❖ 시장개방 확대	
❖ 제조업 고도화	
❖ 창업, 공유경제 확대	
❖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육성	
❖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 은행, 기업 부채 관리 강화	
❖ 금리 환율 자율화	
❖ 공급 과잉산업 구조조정	
❖ 국유기업에 혼합소유제 확대	
❖ 환경 오염 규제 강화	
❖ 제2수도 숭안신구 건설	
〈자료: 당대회 업무보고〉	

(서울신문)

4. 정책 제언

- 9차 당대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 보다는 경제적 발전을 통한 국내 빈부 격차를 줄이고 전면적 소강(샤오강) 시대에 들어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만들겠다는 것임.
- 이에 지도부, 당간부와 현장 지도자 그리고 기업 및 인민이 대동단결하여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임.
 - 당과 기업구조의 꾸준한 개혁을 강조함.
 - 새시대 사회주의 문화(정신, 물질) 창조를 강조함.
 - 발전 동력의 혁신을 강조함.
 - 또한, 환경과 첨단산업을 강조함.
 - 강한 군사력과 군의 사상을 강조함.
 - 외부세계에도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강조함.
 - 중국의 완전한 통일과 특별행정구의 단합을 강조함.
- 10차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에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의미함.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사상과 그 사상으로 나타날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우선 한국 정부와 정당의 입장에서 공산당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이라는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섭하는 동안 서로에 예를 지키며 그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당대회 공작보고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이 주요 정책으로 나올 것이기에 정책으로 나오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믿고 분석하며 중국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의 교류를 증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중관계에서 밸런스 외교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맞는 전략과 미국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여 전체 전략구도에서 이러한 개별적 전략을 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며, 남북한 관계도 중미의 틈이 아니라 선별적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주변의 안전과 인접국가간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기에 이를 통한 남북교류의 기회도 엿볼 수 있다고 판단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미리 잘 파악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함.
- 중국이 사상을 강조하며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을 쓰기에 중국 정치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문화 상품은 중국 상륙이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로 교류하며 양국의 국내 정치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광이나 중국에 해를 주지 않는 무역 등의 교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제품이나 상품의 수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타 정부간의 밀접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중국정부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임. 예를 들어 주변의 안전과 중국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상호 우호관계 개선 등은 조만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JTBC 방송 보도자료(김진호 출연 부분, JTBC 작가 작성)

중국 인민망 보도내용과 당대회 관련 연설 동영상(동영상을 반복하여 보며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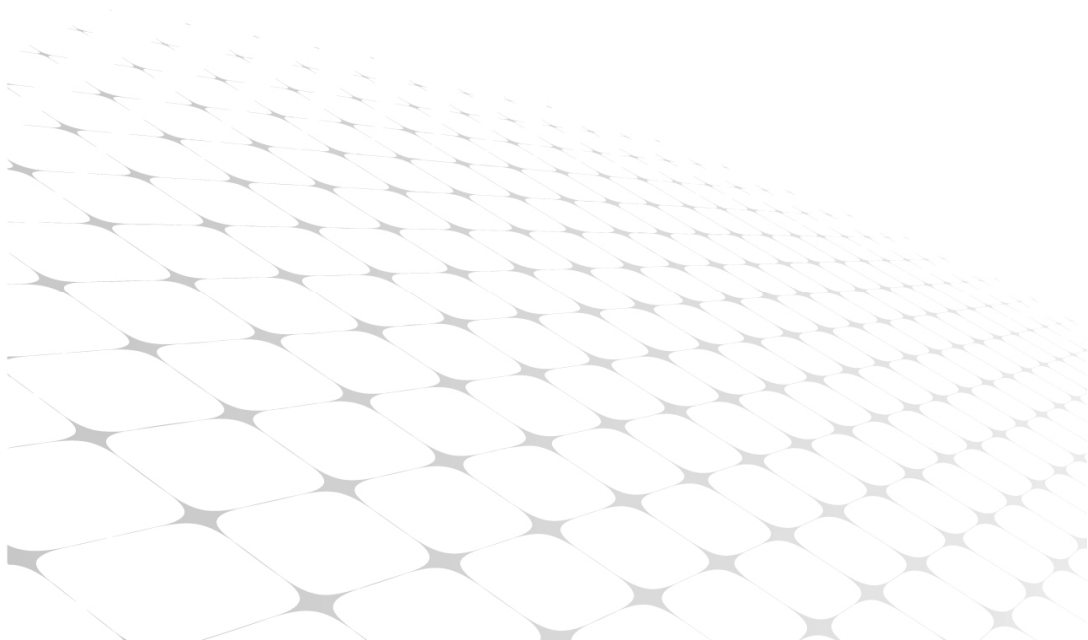
중국 인민일보 당대회 보도 내용

CNN 중국 당대회 보도 내용

기타 기존 인터넷자료들을 저자의 판단에 맞추어 정리함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의 변화와 연속성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의 변화와 연속성

이동률 교수(동덕여대)

1. 시진핑 '신시대' 출범의 의미와 특징

□ 강력한 시진핑 중심 체제의 출범

- 집권 2기 시작과 동시에 '시진핑 사상' 이 당장(黨章)에 삽입되는 파격이 있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사에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후진타오와 장쩌민은 물론이고 덩샤오핑까지도 넘어서는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국부(國父)인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 당 대회에서 정치국 25명 가운데 15명,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가운데 5인을 교체하였다. 새로운 상무위원 가운데, 리잔수, 왕양, 자오러지 3인은 확실한 시진핑 측근 인사로 충원되었다. 최소 향후 5년 시진핑의 '신시대'가 전개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지도부 합의를 통한 정치 관행의 파격

-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는 중국 정치발전의 흐름에서 보면 '신시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신사상을 강조했으나 시진핑 2기 체제는 덩샤오핑 이후 진전되어왔던 이른바 중국식 정치발전과 제도화라는 큰 흐름에는 역주행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1인 체제로 회귀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권력승계를 상징해왔던 격대지정(隔代指定)의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시진핑의 3 연임 집권은 현 상황에서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선거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중국 체제가 권력교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성을 제고해왔던 격대지정의 관행이 일단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차 당 대회(2022년)이후 중국의 권력 승계가 모호해지면서 권력 승계 문제가 중요한 정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제도화의 후퇴로 불안정의 요인이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권력 기반은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19차 당 대회 결과 관행과 제도의 파격과 역주행이 진행되었지만 일단 당 대회라는 공식 제도와 절차를 통해 당장도 수정하였고 최고 지도부도 재편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차 당 대회장에는 ‘신시대’를 역설하는 시진핑의 좌우에 전임 총서기 장쩌민과 후진타오 두 사람이 나란히 배석하면서 당내 합의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결정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덩샤오핑 이후 진전되어 왔던 관행을 통한 제도화의 기틀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렇다고 시진핑 체제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요컨대 집권세력 내부에는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공동의 절대 목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19차 당 대회에서 집권 세력 내부에서 공산당의 집권 강화를 위해서는 그간의 정치발전과 제도화를 유보하는 역주행을 감행하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데 합의 또는 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시대’ 라는 국면에서 권력의 집중화를 통한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통합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공산당 체제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 신시대(新時代), 신사상(新思想) 강조의 의미

- 마오쩌둥 시기는 혁명이 시대정신이자 과제였고, 덩샤오핑으로부터 시작되어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의 이른바 개혁 지도부는 고도성장 신화를 기반으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가 상징하듯이 더 이상 성장신화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성장신화를 통해 덮어 왔던 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 주석은 지난 5년 정치개혁보다는 반부패 캠페인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일정한 한계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성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중화민족주의는 양날의 칼이라는 위험성이 있다. 시진핑 체제는 새로운 집권 정당성의 원천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러한 고심의 결과가 '신시대'와 '신사상'의 담론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의 확보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요컨대 19차 당대회 보고는 기본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공산당 체제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당의 단결된 지도의 결과 아편전쟁 이후 구(舊)중국이 겪었던 수모와 비참함을 씻어내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 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과거 100년 치욕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중국 인민들에게는 부강한 중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공산당 체제 강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시대'의 과제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을 해소하여 강국화(強起來)의 길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강국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강국화 일정을 제시했다. 개혁개방 40주년(2018), 건국 70주년(2019),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2020),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그리고 20차 당 대회(2022) 등 중국의 굴기(崛起)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정치이벤트의 장(場)이 매년 마련된다. 외형상으로는 중국의 '신시대'의 도래를 국내외 확인해줄 수 있는 기회이다.
- 그런데 향후 시진핑 2기 5년 기간에 중국 꿈 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정치적 부담과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역대 정부는 사상이나 이론이 사후 또는 퇴임 후 삽입되어 역사적 업적 평가의 성격을 띠었던 반면에 시진핑 체제는 임기 중반에 '시진핑 사상'을 조기에 당장에 삽입함으로써 향후 5년 '시진핑 사상'의 의미와 성취 여부에 대한 검증성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이 또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속에 확실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빠르게 제고 되고 있으며, 제도화의 역주행으로 당 체제 정비도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의 강국화 추세에 따라 인접국들의 경계도 고조되고 있고 향후 불가피한 미국과의 세력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 요컨대 시진핑 2기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확립하고 장미 빛 비전을 제시하며 화려하게 출범한 듯 보이지만 실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시진핑 2기가 제시하고 있는 강국화 플랜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가고자 한다면 향후 국내 발전과 안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2. 시진핑 2기 외교전략의 변화와 지속성

□ 19차 당 대회와 외교 정책의 연속성

- 당 대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내 정치 행사이다. 중국 8천9백만 당원, 나아가서는 14억 중국 인민들에게 과거 5년의 사회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새로운 5년을 이끌 당 지도부를 재구성하면서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국내 정치 행사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 대회에서 외교 전략의 새로운 변화가 제시되지 않으며 변화의 계기가 되지도 않는다. 실제로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3시간 30여분이라는 장시간 발표한 장문의 공작보고에서 외교 분야는 전체 13장 가운데 1장에 불과하다. 국방과 통일 분야까지 포함해도 3장에 불과하다. 다만 5년 단위의 당 대회가 중국 공산당 집권세력에게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당대회 일정 때문에 유보하거나 미루어둔 외교 정책결정이나 일정이 추진되면서 성공적 당 대회 개최의 ‘전시(展示)성 효과’가 있을 수 있다.
- 중국은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 등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인사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공산당 내부에서의 인사 변동이기 때문에 인사 변동으로 인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큰 틀에서는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7로 끝나는 해의 당 대회에서는 연임하는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 1기에서 구상하고 제시한 외교전략 기초를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미를 갖는다.

- 실제로 공작보고의 외교 분야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평화발전,’ ‘신형국제관계’, ‘운명공동체’ ‘친성혜용(亲诚惠容),’ ‘의리관(义利观)’ 등으로 기존의 담론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신형국제관계’ 건설과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을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외교전략과 정책기조의 큰 틀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신시대’를 주창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떤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전술적 변화를 도모할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 시진핑 2기 외교 정책의 변화

- 시진핑 중심의 권력 강화의 이유가 국내 취약성과 그에 따른 권력내부의 위기 공감대에 있는 아니면 반대로 강국으로의 부상 실현에 대한 기대 공감대에 기인하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점은 시진핑 2기 체제가 외교보다는 내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시 주석은 내부 체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서도 여전히 국내 발전과 안정이 중요하다. 시진핑 2기 정부는 강화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일단은 공세적 외교 보다는 오히려 저비용의 안정된 국제관계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시진핑 정부1기 출범 초기에 이례적으로 주변외교좌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인접지역 관리에 신경을 써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접 국가들과의 연이은 영유권 분쟁, 사드 갈등, 북한의 핵 도발 등으로 주변외교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아시아에서의 중국에 대한 경계는 강화되었다. 따라서 시진핑 2기는 장기적으로 중국 부상일정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악화된 주변정세를 개선하려는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이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APEC 회의를

중국이 주변외교를 재활성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중관계 대화 재개를 남북한 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여 중국과의 교감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 실제로 19차 당 대회보고에서는 18차 대회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해양강국’ 담론이 사라지고 대신 ‘일대일로’를 한층 강조하는 변화가 있다. ‘해양강국’ 구상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발전전략으로서의 해양 진출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해양강국 구상과 전략이 야기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딜레마를 완화하면서 해양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일대일로’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의 해양 진출이 ‘이익공동체’라는 공공재를 창출할 것임을 설득하는 지경제학적 접근을 선택 한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도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도 누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할 정도로 강국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고립주의적 경향이 지속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강국화 플랜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중국은 대외개방, 국제협력, 국제주의, 그리고 인류에의 공헌을 당 대회 보고에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당대회 직후 토론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류사회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공헌을 강조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해 개도국의 현대화에 새로운 경로(path)를 제공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방안(soulation)를 제시하고 더 좋은 사회제도를 모색하는데 있어 중국의 지혜(wisdom)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은 전통대국과는 다른 강국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중국은 강국화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면서 점진적으로 미국과 차별적인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장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시도를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으로 전환할 경우, 아시아에서 미중간 지정학 경쟁이 부활하고 한국은 미중 양국으로 부터의 복합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 한편,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비전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민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과도하게 고양시킴으로써 중국 외교가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이 해양 영유권 분쟁과 같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이슈에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 이유이다.
 - 만일 시진핑 정부가 부상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인접국들과 주권, 영토 등 핵심이익과 관련된 분쟁이 재차 발생할 경우 중국인민들의 고양된 기대와 국제사회의 경계를 여하히 조율해 가느냐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사안과 이슈에 따라 상이한 복잡한 대외 행동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 동시에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으로 권력집중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의 유연성이 제약되고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시 주석이 직접 사드 배치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유연성 있는 해결 방안을 쉽사리 제시하기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면서 사드 갈등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던 사례가 있다. 요컨대 향후 중국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외교의 공세성(assertiveness)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직성(rigidity)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양제츠 국무위원이 첸치첸 이후 14년 만에 정치국에 진입했다. 전례에 따르면 양제츠는 내년 3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인대에서 외교담당 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외교의 비중이 증대하고 외교부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신호라 할 수 있다.
 - 양제츠가 외교담당 부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전 경력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중국 외교에서 대미외교가 더욱 강조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외교가 전개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 역대 거의 모든 해외 일정에서 시진핑의 옆자리를 차지했던 왕후닝의 역할을

양제츠가 이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양제츠가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외교 전략과 구상은 왕후닝이 주도하고 양제츠는 실무형 부총리로 역할 분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큰 틀에서는 여전히 외교에서 시진핑 친정 체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3. 한중관계의 함의와 대중국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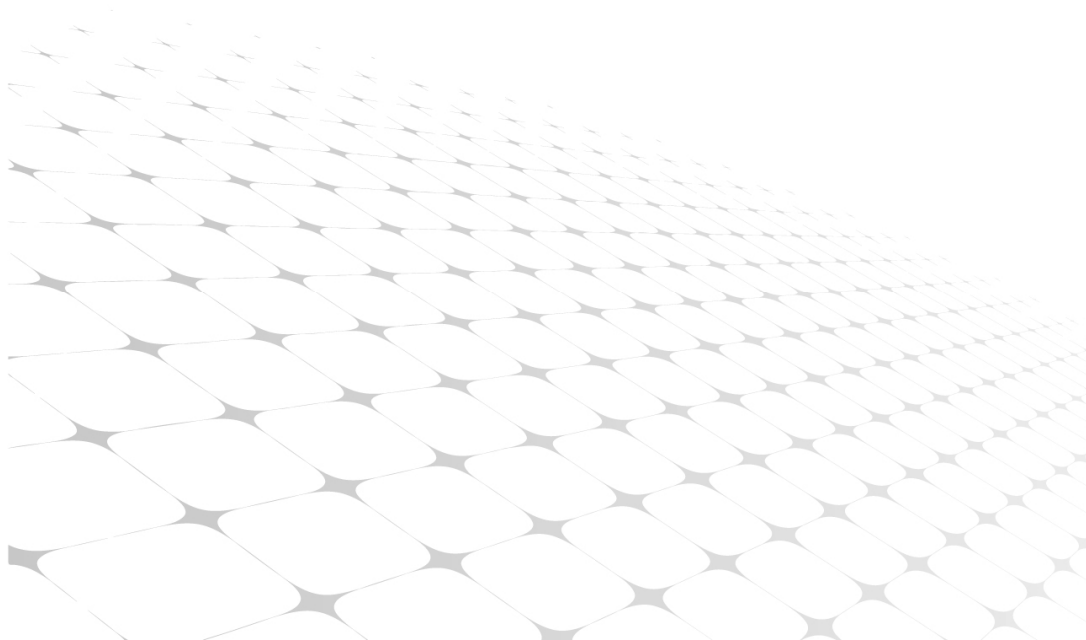
- 19차 당 대회 이후 한중관계는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관계의 경색국면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양국관계 악화가 빠르게 국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회복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상회담이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회담 개최가 바로 양국관계의 회복이라고 해석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정무적 부담이 큰 만큼 경직되게 추진하기 보다는 APEC 등 다자회담을 활용하는 대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고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향후 한중관계의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2013년 박근혜, 시진핑 두 지도자의 특별한 관계에 의존한 양국관계의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양국관계의 발전의 출발은 양국 지도자의 호의와 특별한 관계에서 출발했고 다시 2016년 이후 양국관계가 돌연히 악화된 배경에도 양국 지도자의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단초가 되었다. 정상간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외교 방식의 취약성으로부터 교훈을 가져야 한다.
- 중국은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으로의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한중관계는 정상회담이 주도하는 패턴을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정상간 관계를 국가관계, 그리고 국민관계로 확장하여 제도화하는 노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사드 갈등의 교훈은 정상회담이 중단되면 양국간의 모든 대화가 경색되었다는 것이다. 정례화된 대화 채널을 확립하거나 아니면 경색국면에서도 접촉할 수 있는 대안적 물밑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이 주변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중국의 강국화 일정을 진행시켜 갈 것이고 그 결과 미중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느냐가 중요하다. 미중의 경쟁 소용돌이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북핵과 통일문제에 대한 과도한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청중은 미국이고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청중은 중국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향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도 메시지 발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해결이 미국과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미국과 북핵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
- 한중관계는 이미 양자차원을 넘어서 미중 관계 등 국제구조에 취약한 관계로 전이되었다. 한중관계는 양자차원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 등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중국 부상의 새로운 접근, 트럼프 정부의 높은 불확실성과 불가측성 등으로 인해 유동적이며, 특히 미국의 동맹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더욱 불명확하므로 그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해졌다. 기존의 관행과 매뉴얼에 의존하는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상황과 이슈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미중 복합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사안들을 예상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 한중 양국이 비핵화라는 원론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해법에서 접점을 찾는 못하는 이유는 미래 한반도 지형에 대한 전략적 불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가 초미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장기적 전략 이슈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보의 진전도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전략지형에 대한 논의는 결국 한·미·중 삼국간 논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이번 계기에 한·미·중 대화채널의 중요성을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야 한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중 삼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열어 놓고 논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한·미·중 대화에서 출발하여 한·중·러, 한중일, 그리고 미·중 남북한 등 다양한 소다자 대화로 확장해 간다면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냉전의 귀환’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분야

원동욱 교수(동아대)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 정치·사상 분야

원동욱 교수(동아대)

- 시진핑 집권2기를 구성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집권1기 5년의 평가와 함께 시대인식 및 주요모순 설정에 따른 역사적 사명에 기초하여 정치적 보고가 행해짐
- 그 핵심은 중국식 제도와 규범 그리고 담론을 강화하면서 대내적으로 강력한 개혁 추진과 함께 대외적으로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데 있음. 주목할 점은 시진핑 집권2기가 하나의 시기(period)가 아니라 시대(era)적 변화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2019년 건국 70주년,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등 집권2기의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에 사회주의 현대화강국(G1)으로 등극하기 위한 중간적 단계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장대한 구상을 밝힘

1) 통치이념 및 사상과 관련하여,

-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사상(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당장 삽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이 강화되었다는 증거임. 18대까지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삼개대표론, 과학발전관이라는 주의-사상-이론-론-관이라는 위계에 기초하였으나, 이번 시진핑의 이름이 명시된 사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적어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사상'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은 심지어 덩샤오핑을 뛰어넘어 마오의 위상에 이르려는 시진핑 개인의 욕망이 아닌가?

- 하지만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이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기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여전히 덩샤오핑의 유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임. 물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향후 2050년까지 대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들(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이라는 두 개의 백년에 이르기까지 우선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부강한 민주문명과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룬 강국의 건설)과 그에 따른 여러 실행 방안들의 비전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지만, 단지 그 설계도가 화려해지고 중국적 색채가 좀 더 강해졌을 뿐 덩샤오핑이 과거 제기했던 3단계 현대화 전략(溫飽-小康-大同)이나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경제발전이라는 중심과 개혁개방 견지 및 공산당 영도의 기본원칙)에서 바뀐 것은 없음. 그런 맥락에서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은 덩샤오핑을 능가하는 위상이라기 보다는 중국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객관적 상황의 도전(대내적 통치의 안정화, 대외적 압박의 돌파)에 직면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집체적 인식의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체제로의 전환인가?

- 중국 공산당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덩샤오핑 주도로 지도부의 승계와 관련한 규범을 확립하는 동시에 집단지도체제를 정착시켜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권력 엘리트들의 교체와 세대별 순환을 제도화해옴. 이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의 주요 관전포인트는 당 주석직의 부활, '칠상팔하(七上八下: 당대회 시점에서 67세는 상무위원회 진입이 가능하고 68세 이상은 은퇴해야한다는 내규)'의 폐기, 격대지정(隔代指定: 격대로 후계구도를 지정하는 관례)의 관철 여부에 있었음
- 이는 곧 중국 공산당의 권력 최상층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신을 중심으로 예상 명단과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들이 난무, 실제 이루어진 인적 구성에 따르면 당 주석직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칠상팔하의 원칙도 유지되었으나, 격대지정에 따른 후계구도의 확정에는 이루어지지 않음. 그렇다면 이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을 넘어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과 함께 시진핑 1인체제로의 전환을 입증하는 것인가?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을 개인의 권력욕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1인체제의 완성이나 전체주의로의 회귀로

판단함

- 하지만 시진핑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당 전체로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가능. 중국 공산당은 줄곧 당의 지배적 통치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으며, 특히 마오쩌둥과 같이 한 사람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방식을 피하는 동시에 체제에 불만을 느낀 대중운동과 당 내부의 분파가 결합하는 위협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음. 당 내부에서 때로는 계파간 갈등이나 정책적 이견 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무위원회의 분업체제를 중심으로 합의와 그에 따른 결정을 수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18대 당대회 전후의 권력이행기에 발생한 보시라이 사건과 그와 연관된 저우용캉 사건은 당의 집단지도체제의 불안정성과 문제점(리더십의 약화와 권력분점, 그리고 이로 인한 집단지도체제의 균열)을 드러낸 것으로 상무위원수의 축소(9인에서 7인으로)와 영도핵심의 등장 등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에 합의함. 더욱이 빈부격차, 부정부패, 생태위기, 부채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과 같은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도 좀 더 강력한 권력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격대지정의 구도는 흔들리기는 하였지만 아직 폐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6세대 후계구도로서 후춘화, 천민얼이 여전히 정치국원으로서 차기 경쟁구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엘리트 파벌정치의 형식적 균형도 이루어졌음(물론 상하이방의 노화와 공청단의 비계파화 추세는 지속될 것임). 시진핑 측근들(習家軍)로 대거 중앙위원회 및 정치국에 진출하긴 하였으나 당 주석직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1인체제의 완성으로 보거나, 향후 5년간 시진핑의 정치적 업적 평가에 따라 차기 지도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20대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집권 연장을 단정짓는 것은 다소 선부른 판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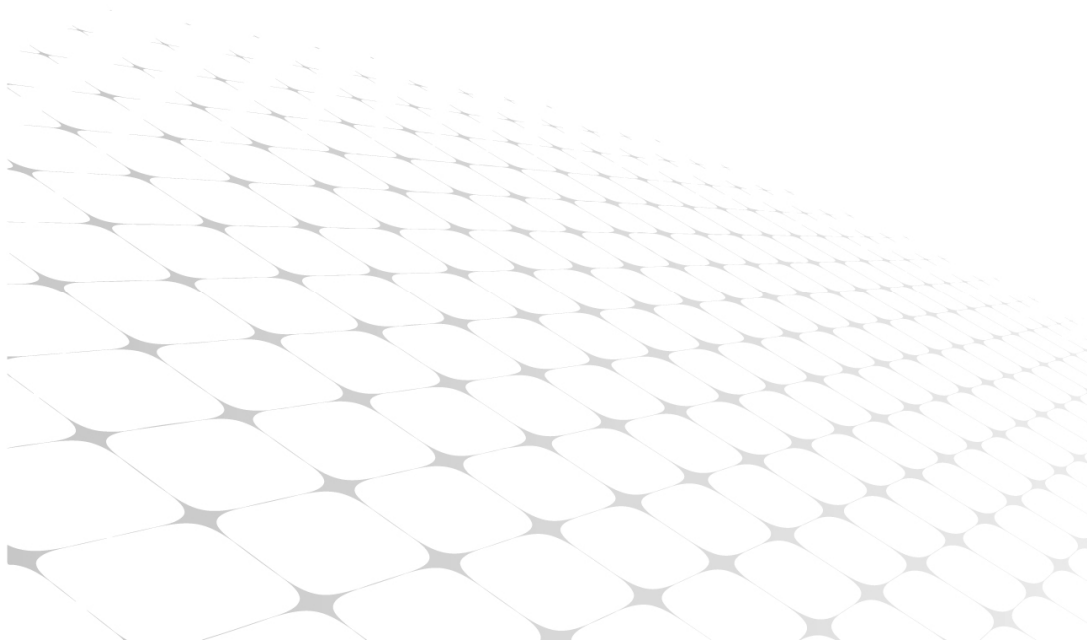
3)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지도자들에게 각기 권력이 집중되는 스트롱맨의 시대, 시진핑의 권력집중의 강화는 내치의 연장으로서 대외정책에서도 중국식 질서, 가치가 투영되는 강성 외교의 양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임.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라는 정치사회적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주의는 강화되고,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

- 한중 양국 시민사회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차단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정치의 국가주의적 이념과 담론이 보다 정교해지고 국가간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도 강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중국 공산당의 정치사상적, 이론적, 제도적 진화에 대한 연구 심화와 함께 촛불혁명으로 이룬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으로 이에 대응해야 함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

최필수 교수(세종대)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방향 전망

최필수 교수(세종대)

I. “習近平 新時代 中國特色 社會主義”

- ‘시진핑’이란 리커창이 아니라는 뜻: 리커창과 대비되는 시진핑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것이 경제 정책에 어떤 함의를 지니나?
- ‘새로운 시대’는 ‘중국의 발전단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서구 모델의 유효성이 다해간다’, ‘신창타이’라는 세 가지 함의를 동시에 지님
 - 이제 조만간 중국은 소강사회의 문턱에 들어설 것이고 2050년에는 대동사회에 진입
 - 서구의 다당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의 보호주의 등으로 그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 한편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의 시대는 끝나고 6% 대의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방점은 ‘사회주의’에 있음
 -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80년대 덩샤오핑에 의해 처음 사용한 말이며 이후 역대 지도자들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음
 - 개혁 초기에는 과거의 계획경제 사회주의와 결별하고 중국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개혁 지향적인 함의를 지녔음
 - 그러나 시진핑이 30년 넘게 되풀이 돼 온 이 말을 19大에서 강조할 때는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체제에 기반해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임

※ 시진핑은 왜 강한 자의식을 보이냐? 黨章에 자기 이름을 넣는 무리수를 둔 이유? 원로는 없지만 라이벌은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모두 덩샤오핑의 제자 입장이었고 당 원로들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반 대급부로 덩샤오핑 외에는 그들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자가 없었다. 후진타오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10년 전부터 이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었음. 즉 확고히 예고된 젊은 후계자로서 긴 황태자 시절을 보냄. 후진타오 집권 시절 공식적 2인자인 원자바오의 당서열은 3위에 불과. 즉 마땅한 라이벌이 없었음. 그러나 시진핑은 태자당의 결 집으로 갑자기 발탁되자마자 리커창과 서열을 놓고 경쟁해야 했으며 정상에 등극하기 5년 전에야 중앙정치국 상무 위원이 됐다. 승진 내력에 있어서도 후진타오의 후원을 받는 리커창보다 늦었음. 후진타오가 권력의 끈을 놓고 깨끗 이 퇴임한 덕분에 시진핑은 원로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 원로의 보호도 없었다. 즉 스스로 능력과 정당성을 입증하 여 서열 2위인 리커창을 압도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개방론자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했다.

표1. 시진핑과 리커창의 성향과 경제정책 비교

	시진핑	리커창
기본노선	실용주의 개혁	서구식 개혁
대표정책	공급측 개혁 일대일로, AIIB	인터넷+ 제조업2025 금리자유화
경제정책의 중점	구조조정과 개혁	리코노믹스 신형도시화 China 2030 (WB & DRC)
배경	안정적 경제운용 경기부양 선호	경제학자, 공청단 엘리트
장점	기초관료, 하방당한 혁명원로의 아들	통화·재정 등 서구식 거시경제 운용에 능숙
기타 성향	산업 구조조정과 육성 등 실물경제에 능숙	• 목표 성장률을 공개적으로 암시 • 공식 통계를 폄하하며 자신만이 관찰하는 경제 지표가 있다고 과시 • 경제 체제의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자본계정 개방이나 국유기업의 과감한 민영화를 실험했을 수 있음
	• 장기적인 비전 공표 • 실용적이지 않은 개혁에는 관심이 없음 • 목표 성장률을 공언하지 않으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도 초연함	

□ 19大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체제의 강화는 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개혁·개방에 대한 극복이라는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시진핑과 리커창 모두 개혁을 말하긴 하지만¹⁾ 둘의 색깔은 미묘하게 다름. (표) 시진핑이 실용주의적 개혁이라는 덩샤오핑의 적통을 이은 반면, 리커창은 소위 주류 경제학²⁾의 거시경제 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덩샤오핑이 천원(陳雲)으로 대표되는 보수파에 승리한 이후 중국 공산당 주류는 모두 시장주의 개혁파임. 전개혁 시절을 빈곤과 혼란의 시기로 규정하고 後개혁 시기에 중국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중국 공산당의 공감대임.
2) 케인지언과 통화주의자들이 논쟁과 실전을 통해 상호 수렴하여 형성한 경제학으로 오늘날 거시경제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시진핑이 기존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자기 이름을 붙여 지도 이념으로 재강조한 것은 서구식 주류 경제학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됨
- 리커창은 2015년 여름 위기 처리에 실패한 후 경제운용에 대한 권위를 본격적으로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음 (추후보완)

II. 시진핑 전반 5년 경제 회고

1. 현상

[성장률 둔화] 3년간(2009~2011)의 경기하방 대응 집중투자가 끝나자마자 2012년부터 성장률 7%대로 추락, 급기야 년초 공언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최근 들어 6%대의 성장률로 하향 안정세

[다양한 차이나 리스크 담론 출현] 그림자 금융, 정부부채, 기업부채: 그러나 실현되지 않음

[2015년 여름의 위기] 주가 폭락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무리수 (매도 금지 등), 급기야 환율 상승과 외화유출로 이어짐, 기존 리스크 담론에서 예측하지 못 한 위기

[일대일로 추진과 AIIB] 적극적 대외개방전략인 ‘一帶一路(B&R Initiative)’를 黨章에 삽입. 구체적 정책이 당장에 삽입된 것은 초유의 사태

2. 배경

[잉여노동력 감소] 중국의 잉여노동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노동력 투입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짐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감소] 잉여노동력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이면은 고령화인데, 이는 저축 감소를 초래함. 중국은 저축이 GDP의 절반 가까이 달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는 투자에 대한 공급이 많다는 것과 소비가 적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함, IMF(2016)에 따르면 고령화 1%p의 증가가 저축률 0.4~1%p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한국은행(2017)은 이미 중국의 소득(GNI)대비 가계저축률이 2012년부터 감소한다고 밝힘

[투자효율 감소] 그동안 중국이 투자를 계속해도 됐던 이유는 일인당 자본량이 극도로 적었기 때문(2015년 기준 중국의 일인당 자본량은 미국의 30%에 불과), 그러나 최근 자본량 증가속도가 일인당 GDP 증가속도를 추월하면서 과잉투자의 혐의가 발생함

[외부수요의 급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교역량이 축소되면서 수출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움

Ⅲ. 시진핑 전반 5년 경제 개혁 조치들

1. 수요측

[신창타이 담론으로 저성장 용납] 고속성장을 위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사표현이자 고속성장을 희생하고서라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함

[금리자유화] 기존에 중국은 예금금리의 상한선과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명시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금리 통제 국가였으나 2013년 대출금리, 2015년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금리의 자유화는 중국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³⁾)을 해소할 중요한 첫걸음이며 중국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개혁임. 그러나 2013년 전체 산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국유부문에 전체 은행대출의 60%가 투입되고 있는 등 여전히 중국은 준(準)관치금융 상태에 머물러 있음 (국유부문의 자산수익률이 민간부문보다 5% 이상 낮음)

[1가구2자녀 전면허용] 고령화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의 시효가 다했으므로 두 자녀 출산의 제약을 완전 폐지 (2008년 부부 둘 다 외동 → 2013년 부부 한 편이 외동 → 2015년 무조건)

[신형도시화] 기존 도시화가 토지개발 위주였다면 신형도시화는 ‘사람 중심의 도시화’를 표방 (“3개 1억명”: 1억 농민공 시민화, 1억명 주거환경 개선, 1억명의 중서부 농촌 도시화 추진)

3) 금리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강제하여 예금자를 억압하고 (정부의 영향을 받는) 대출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상태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 인프라투자를 사실상 전담하는 지방정부들이 합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토록 조치

[사회보장 확대] 13차5개년계획은 “동반(共享)경제”라는 구호 아래 포괄적인 사회보장 확대 정책을 제시함, 공공서비스 확대, 빈곤구제, 의무교육, 보험체제 전국·도농 일원화 추진

2. 공급측

[공급측 개혁으로 과잉설비 축소] 시진핑 지도부는 “三去一降一補⁴⁾”라는 구호 아래 과잉을 해소하고 한계기업을 퇴출(Black List)시키며 부채출자를 진행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

[형식적 혼합소유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미진한 와중에 일부 개혁 사례 (국유기업간 합병 사례들, 차이나유니콤의 적극적인 주식 개방), 국유기업 유형별 처리방안(상업형, 핵심상업형, 공익형)

[인터넷+, 중국제조 2025 등 과감한 산업정책] White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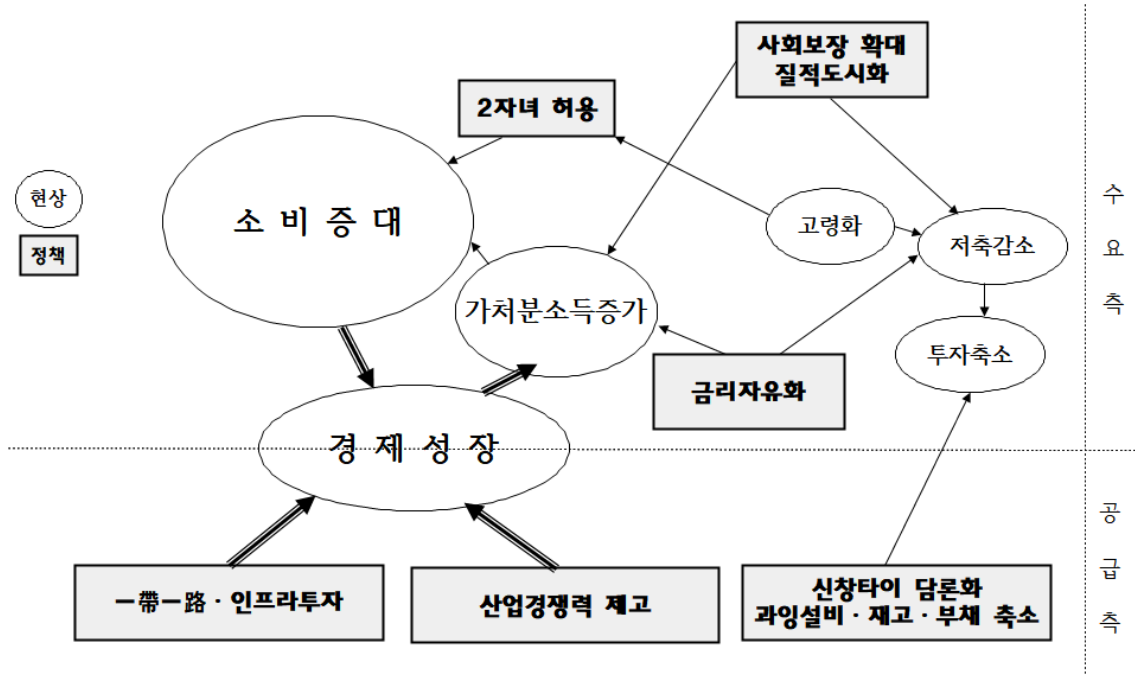
IV. 향후 개혁방향 전망

- 시진핑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리커창식 개혁이 힘을 잃고 시진핑식의 좀 더 실용주의적인 개혁이 진행될 전망
- 특히 자본계정 개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임 (10월18일 시진핑의 당대회 보고에서도 “이자율과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시킨다고 하면서도 “금융감독 체제를 완비하고 제도적 금융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굳게 지킨다⁵⁾”고 표현하고 있음)
- 국유기업 개혁도 기업간 합병이나 민영화 뉴스가 자주 등장하겠지만 근본적인 국유 통제를 상실하는 식의 개혁은 결코 없을 것 (최근 3대 무선통신 사업자 중 하나이자

4) 과잉생산설비 제거, 과잉재고 제거, 과잉레버리지 제거, 생산비용 절감, 부족한 면은 보완

5) “深化利率和汇率市场化改革。健全金融监管体系，守住不发生系统性金融风险的底线”

‘핵심상업형 국유기업’인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이 민영화에 준하는 지분 개혁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국유지분 51% 이상을 유지하게 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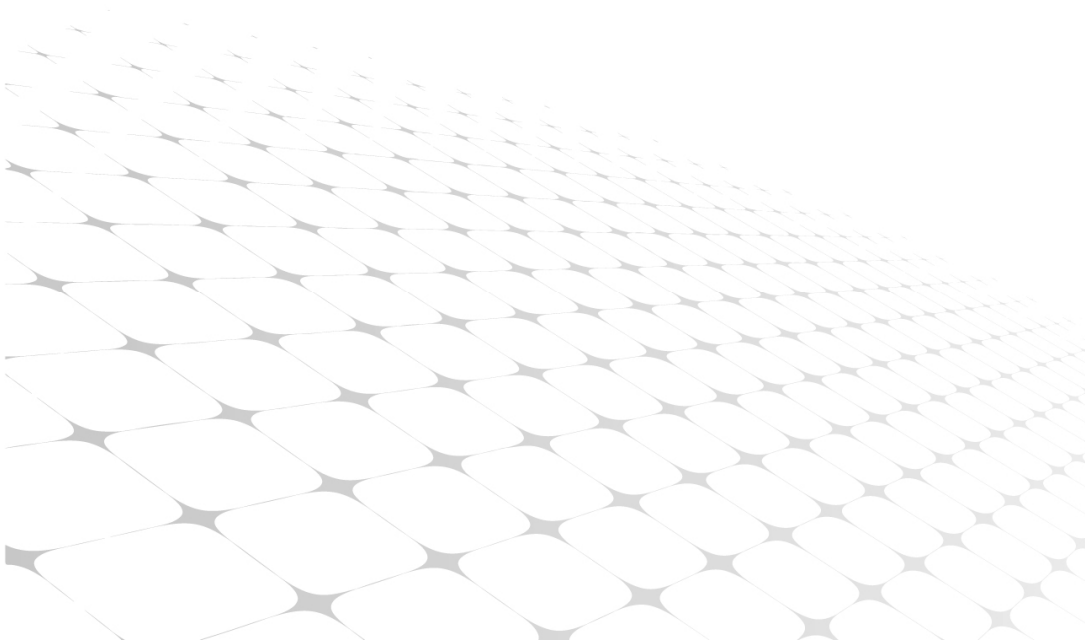
[그림] 시진핑 정부의 개혁추진 개념도

표 2.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과 前지도부 정책과의 관계

시진핑 지도부 정책	前지도부 정책과의 관계	
신창타이 공급측 개혁I (과잉축소·Black List)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의 비판적 극복	
두 자녀 허용 금리자유화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의 완수	
신형도시화 사회보장 확대 공급측 개혁II (산업정책·White List) 一帶一路	농민공 시민화 포용적 성장 자주창신 對新형국 경제협력	계승 발전
형식적 혼합소유제 자본계정 통제	연속적 개혁 보류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결과와 함의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결과와 함의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1. 19차 당 대회 결과 분석

1-1. 국내 정치

1-1-a: 차기 후계구도

- 광둥성 당 서기 후춘화(胡春華)와 충칭시 당 서기 천민얼(陳敏爾) 등으로 거론되던 차세대 지도자 그룹이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19차 당 대회에서 차기 지도자 그룹은 나타나지 않음.
- 이로서 시 주석의 2기는 레임덕이 최소화되고 당의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전망됨.
 - 차기 지도자 그룹이 안개에 쌓이면서 시 주석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 60년대 출생 지도자 그룹들의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며, 레임덕이 최소화된 지도력을 향후 5년간 누릴 수 있게 됨.
 - 또한 19차 당 대회 직후 이어진 지방정부 지도자 인선에서 10월 28일 중공중앙의 결정으로 후춘화는 광둥성 서기에서 물러나고 랴오닝성 서기 리씨(李希)가 새로운 광둥성 서기로 임명되었음.¹⁾
 - 이로서 후춘화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1) “广东等4省省委主要负责同志职务调整” 新华网 (2017年10月28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10/28/c_1121870460.htm>

- 반면 천민얼 충칭시 서기는 지난 7월 현직에 임명된 지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아 직위의 변동은 아직 보이지 않음.

1-1-b: 왕치산 전 서기의 거취

- 19차 당 대회 기간 중인 10월 20일 당 대회 주석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예비후보 인선건의명단(中央纪律检查委员会委员候选人预备人选建议名单)’에 이어 22일 예비 선거에 의한 정식 후보자 명단에 왕치산 서기가 포함되지 않고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왕치산 서기의 후임으로 자오러지 부장이 유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달았음.²⁾
- 결과적으로 왕치산 서기가 물러나고 자오러지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선출되며 왕치산의 유임 여부와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7상8하’의 관례는 19차 당 대회에서 유지됨
- 19차 당 대회를 통해 자오러지가 새로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등장하였지만 당 기율위가 2018년 신설이 예상되는 ‘국가감찰위원회’³⁾와 통합되면 자오 서기가 그 수장을 맡을지 아니면 왕치산 전서기가 돌아와 수장을 맡아 시 주석과 함께 반부패 사정을 총지휘할지는 향후 지켜보아야 할 부분임.
- 이 외에도 왕 서기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시 주석을 계속해서 보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1-1-c: 시 주석의 사상 당장 삼입

- 시 주석이 19차 당 대회 개막일 ‘보고’에서 69차례나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언급한데 이어 나머지 6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지방 대표단 토론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언급하며

2) “党的十九大主席团举行第二次会议” 人民日报 (2017年10月21日); “中 반부패 사정총수 내정설 자오러지…‘시진핑 친위체제 구축’” 인민일보 (2017년 10월 20일);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 후임으로 자오러지 발탁” 인민일보 (2017년 10월 22일).

3) 19차 당 대회 개막일인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당 대회 보고를 통해 “국가, 성, 시, 현에 감찰위원회를 설립한 후 당 기율검사조직과 통합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관할토록 하겠다”고 언급했음.

당장에 삽입 가능성이 예상되었음.

- 결국 24일 폐막일에 시 주석의 통치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 ‘행동지침(行動指南)’ 중의 하나로 삽입된 당장 개정안이 통과됨.⁴⁾
 - 3개 대표론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과학적 발전관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주창한 것임. 하지만 3개 대표론과 과학적 발전관 앞에는 마오와 덩과는 달리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의 명기는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 시 주석에게 ‘핵심’ 호칭을 부여한 것에 이어 시 주석의 권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
 - 시 주석은 이처럼 강화된 위상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와 4개 전면(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업치당) 구도를 추진하며 실현해 나갈 것임.

1-2. 경제정책

- 근본적으로 19차 당 대회 이후의 중국 경제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 2016-2020)과 ‘공급 측 구조개혁’의 정책적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지도부 2기는 ‘두개의 백년’ 목표인 ‘소강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시 주석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12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시 주석이 계승했다는 의미를 가졌으며 실제로 시 주석은 개방의 확대와 개혁·개방 정책의 유지를 밝혔음.

4) “... 中国共产党以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作为自己的行动指南...” “授权发布：中国共产党章程” 新华网 (2017年10月28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19cpcnc/2017-10/28/c_1121870794.htm

- 시 주석은 '보고'를 통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추진하는 것이라 밝힘.
- 시 주석은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이후 2050년까지 30년의 기간을 다시 15년씩 양분하여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기반 조성,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이는 '두개의 백년'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맞춘 계획임.

1-3. 외교정책

- 19차 당 대회가 가지는 국내정치적 중요성에 비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으나 '신형국제관계'와 '인류 공동운명체' 그리고 강한 중국의 이익 수호 의지 표명은 향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인류 공동운명체'의 강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만을 우선하여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같은 해 6월 1일 파리 기후협정에서 공식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협력과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신형대국관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는 다른 이미지의 리더십을 수립을 추구할 수 있음.
-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중국은 '분발유위(奮發有爲)'의 자신감 있는 적극적인 외교(assertive diplomacy)를 펼칠 것이며,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1-4. 군 인사와 개혁

- 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한 군 인사의 추이를 가늠해보는다면 당 중앙군사위에서 시 주석의 권위와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었음.

- ① 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진행 된 중국군 인사에서 판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퇴임, 차기 부주석 감이었던 팡펑후이(房峰輝) 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장양(張陽)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의 낙마 등 현/차기 중앙군사위 부주석급 인사들의 낙마/퇴임으로 시 주석과 중앙군사위 위원들 사이의 권위 차이가 벌어짐.
 - ②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징성을 가진 ‘태자당’ 인사들이 19차 당 대회 전국 대표 명단에 들지 못하며 위상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음.
 - 예를 들어 마오쩌둥의 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 류샤오치(劉少奇) 전 국가 주석의 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회의 재경위 부주임인 류위안(劉源), 주더(朱德)의 손자인 공군 지위학원 부원장 주허핑(朱和平), 리셴넨(李先念) 전 국가주석의 사위인 류야저우(劉亞洲) 전 국방대학 정치위원 등이 19차 당 대회 대표 명단에 들지 못함.
 - ③ 반면 시 주석의 측근들인 속칭 ‘시자권(習家軍)’ 인사들의 인민해방군과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약진이 나타남.
 - 예를 들어 장유샤(張又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리취청(李作成) 연합참모부 참모장, 웨이펑허(魏鳳和) 로켓군 사령원, 마오화(苗華)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한웨이궈(韓衛國) 육군 사령원, 덩라이항(丁來杭) 공군 사령원 등이 중용되었음.
 - 또한 시 주석의 군내 복심으로 알려진 중사오쥔(鍾紹軍, 소장) 중앙군사위 판공청 부주임도 주임으로 승진 전망됨.
 - ④ 주석, 부주석, 위원을 포함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수가 총 11명이었으나, 19차 당 대회 이후 총 7명으로 주석 1명, 부주석 2명의 수는 동일하나 위원의 수가 8명에서 4명으로 줄었음.
- 시 주석은 강화된 군내 위상과 장악력을 바탕으로 19차 당 대회를 통해 밝힌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의 전면적인 추진’⁵⁾을 실현하기 위한 군 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5) “...坚持走中国特色强军之路，全面推进国防和军队现代化...” “中国共产党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在京开幕 习近平代表第十八届中央委员会向大会作报告 李克强主持大会 2338名代表和特邀代表出席大会” 新华社 (2017年10月18日).

2. 19차 당 대회 결과의 외교안보적 함의

2-1. 미중관계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이에 따른 TPP와 파리기후협정의 탈퇴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임.
-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 국제 레짐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커질 공간이 넓어짐을 뜻함.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공식 발표이후 중국은 EU 및 대다수의 협정 참여국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함
- 또한 미국의 TPP 탈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17년 3월 23-26일에 하이난성(海南省)에서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서 국제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경제적 리더십을 높이려 노력해왔음.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 자유 무역 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추구해 왔음.
- 이 외에도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2-2. 한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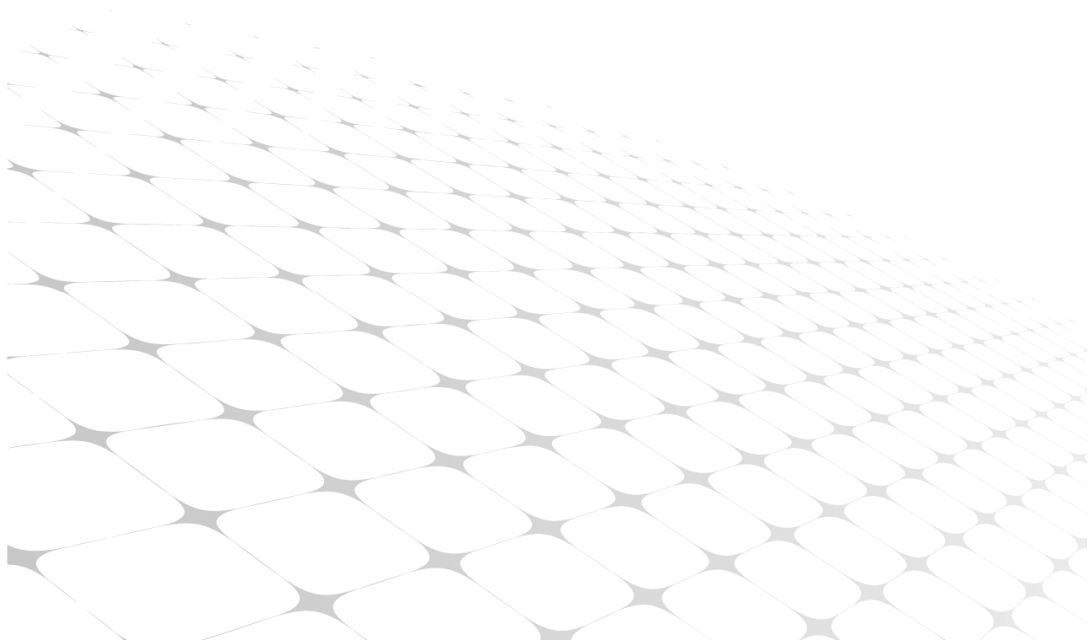
-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2기 지도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중국의 對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오히려 11월로 예정 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핵문제와 한중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미중사이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시진핑 2기 지도부 인선에 따른 대북정책과 한중관계에 관련된 정책적 유동성은 미미할 것임.
- 후진타오 시기 장덕장(張德江)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북한 김일성대학 경제학과에서 2년간 수학한 경험이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음.

- 19차 당 대회를 통해 당과 군에 대한 리더십 강화가 확인되고 국내정치적 부담을 덜은 시 주석이 1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THAAD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국과 빅딜에 합의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개혁·개방정책을 유지하며 ‘新시대’의 ‘新모순’이 인민들의 행복추구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에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발전의 ‘양’보다 ‘질’을 추구할 것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흐름(혁신, 친환경, 친서민)에 빠르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의 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들에는 ① 한·미·일 협력을 약화 ②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길들이기’ ③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자국기업 보호’와 ‘기술 국산화’라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음.
 - 또한 THAAD 배치 문제는 한중 양자 간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임.
 - 따라서 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절충안이나 해결을 위한 획기적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THAAD 배치 후 ‘해결’이 아닌 이에 대한 ‘관리’를 모색해야 함.
- 19차 당 대회를 전후로 한 한중 관계는 ①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지역·세계적 레벨의 전략적 함의를 포함하게 되고, ② THAAD 배치 이슈의 등장 이후 양국 간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인식이 악화되고, ③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가 변화하는 등 새로운 양자관계 시기에 진입했음.
 - 따라서 ‘출구,’ ‘회복’ 또는 ‘정상화’라는 접근법보다는 구조적으로 변화된 양국 관계의 현실을 인식하며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개선과 관리를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임. //끝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허승재 심의관(외교부)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